

W_F_035

쉐뿔에 쳐 죽을 운

2016년 10월 18일, 조천읍 신촌리 허재군씨 댁, 이현정 조사.
허재군(남, 1948년생, 조천읍 신촌리)

[제보자] 글쎄? 그거는 그렇다지만 우리가 생각할 직, 허기에는, 게고 하나는 그, 한 가지 얘기는 그, 쉘뿔에 쳐서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응. 쉘뿔에 쳐서 어, 죽었다는 얘기는 그 촌에덜은 이제 곧으믄은 이제는 잘 그 것이 없주만은 옛날에는 이 촌에, 촌길에는 가름길에, 가름길에는 영, 골목 들어가는 으 카드에 으만한 돌덜 이렇게 팡돌 놔가지고, 으만헌 높이로 헷어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게서 이제, 이렇게 영, 한 줄 영 놔진 디가 있어. 카드 영 들어가는 디, 그런 데 가 간간이 있다고. 봄날씨가 딱 되니까 날은 따뜻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그, 그 돌우에다가 이렇게 앗아서 놀고 있으니깐, 그 권제 받으레 다니던 스님이, 스님이. 권제, 권제란 말이 알지?

[조사자] 시주 받으러 다니는 거주마씨.

[제보자] 응. 시주 받으레. 권제 받으러 다니던 스님이 딱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 관상을 딱 본 거여. 지나가다가, 쑥 지나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, 할아버지헌테 허는 얘기가

“영감님은 오늘 하루 앗아가지고, 쉘뿔에 쳐서 죽을 운이니까, 죽을 운이니 조심하세요.”

이렇게만 해두고 딱 가버린 거여. 이렇게만 딱해서 이제, 가 버리니깐, 아 이 거 좀 듣기가 좀 기분 나쁘단 말이여? 응? 그래서 이제, 그 할아버지가 오끗허게 일어산 집에 들어강, 방에 강, 딱 앗았어. 옛날 문은 지금 곧으면 이제 미닫이 문이주만, 옛날 문은 지겟문이라.

[조사자] 예.

[제보자] 여닫이문으로, 여닫이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벽장을 이렇게 대가, 대가지고

기대 앗안.

“미친놈, 내가 뭣, 방안에 가만히 앗아 있으면, 내가 왜 쉐뿔에 쳐서 죽어?”

게서 저, 가만히 이렇게, 앗아 있으니까 이제, 아 심심하고 막 귀가 간지러, 가려워. 그래가지구 이제는, 그 문 한 짹을 이렇게 열어가지구, 문 영 열어서 제껴놓곡, 벽장 우에다가 그, 귓밥 내는 것이 있었어. 그 귓밥 내는 것이 있어가지구, 걸로 이렇게 이제, 이제, 귀가 가, 가려우니까 이렇게 그걸로 이제 귓밥 내면서 이렇게 허다 보니까 바람이 와닥탁허게 분 거여. 게, 문이 턱 닫아지믄서 그냥 귓창 쑤셔, 쑤셔 죽언. 귓밥 내는 것이 그거 쉐뿔로 만든 거여.

[조사자] 아, 그래서.

[제보자] 응. 그래서 쉐뿔로 쳐서 죽는다.

- 핵심어 : 쉐뿔, 팡돌, 스님, 권제, 죽을 운, 귓밥